

동상





사라지지마! 우리 동네야



이은서 | 대구 사월초등학교 2학년

우리 동네는 참 좋은 곳이다. 내가 다니는 학원도 가까이 있고, 재미있게 놀 수 있는 놀이터와 물고기, 학, 두루미들의 놀이터 강변도 있다. 내가 5살 때 마트에서 사탕을 샀는데 길을 걷다가 떨어트렸다. 나는 다시 할머니와 마트에 갔다. “사장님, 저희 애가 사탕을 떨어트렸는데 제가 돈을 안 가지고 와서 그런데…….” 마트 사장님은 할머니의 말씀이 끝나기도 전에 새로운 사탕을 주셨다. 나는 기분이 너무 좋았다. 그때 마트 사장님이 너무 고마웠다. 그래서 오래 그 일을 잊을 수 없었다. 하지만 코로나19로 장사가 잘 안 되어서 없어져 버렸다. 그때 일을 또렷이 기억하고 있는데 속상했다. ‘사장님 감사합니다.’ 마음속으로 문 닫힌 마트 앞에서 인사했다. 나는 우리 동네가 지금 이대로면 좋겠다. 예전처럼 그대로 기억할 수 있게 사라지지 않았으면 좋겠다. 놀이터에는 아이들이 시끌벅적 뛰어놀고 공원에는 건강한 몸을 만드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아파

트는 매일 행복한 사람이 가득한 우리 동네, 행복한 동네가 되었으면 좋겠다. 코로나 19 때문에 지금 우리 동네는 조용하다. 아이들도 아파트 놀이터에 안 가고 어른들도 길거리에 많이 없다. 학원 다니는 아이들도 학교 다니는 아이들도 적다. 코로나19가 빨리 사라지면 좋겠다. 경비아저씨도 분리수거 잘해주시고 우리들도 마스크 잘 쓰고 쓰레기도 아무 데나 버리지 않아야겠다. 그럼 지구도 깨끗해지고 우리나라에 코로나19도 물러가서 내가 사는 우리 동네에서 오래오래 살 수 있을 것이다.

우리 동네는 나처럼 쑥쑥 자라지 않았으면 좋겠다. 그래도 놀이터에는 뛰노는 친구들이 많았으면 좋겠다. 옛날처럼.